

1. 다음 부산해 양경찰서 다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유 경장의 말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민원인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주시겠습니까?

<보기>
 ㉠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려는 표현이다.
 ㉡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는 표현이다.
 ㉢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죄송하다는 표현으로 듣는 이(청자)의 부담을 낮추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의 의도가 드러난 문장이다.

- ㉠ 발화 형식은 의문문이고, 기능은 요청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 발화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장이다.

정답 : ④

[2.~ 3.] 해양경찰청에서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 업무 관련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일상용어나 법령 용어를 검토하여 국립국어원에 질의,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해양경찰청에서 제시한 100개 용어 중 일본어 20개는 순화용어로 의무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59개와 어려운 한자어 21개는 순화용어 사용이 권장되었다.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우리말 다듬기는 아래의 세 범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쉬운 우리말 쓰기 :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 순수 우리말 쓰기 : 일본어 두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
 - 바른 우리말 쓰기 :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사투리를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2.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리말 다듬기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짐이'를 '부침개'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②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③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④ '비까번쩍하다'를 '번쩍번쩍하다'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해설] ‘지짐이’는 ‘국보다 국물을 적게 잡아 짭짤하게 끓인 음식’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침개’로 순화할 필요가 없다. ②, ③은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경우이고, ④은 일본식 언어를 경우이다.

정답 : ①

3. 해양경찰청에서 제시한 다음 밑줄 친 순화대상검토 용어와 <보기>를 참조하여 국립국어원의 순화용어 의 무사용 또는 사용권장 순화용어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국립국어원 우리말다듬기 순화용어에 의함)

- ㉠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적극적인 불법외국어선 단속활동이 서해5도 어민들의 어획고 증가에 기여했다.
→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적극적인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이 서해5도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에 기여했다.
- ㉡ 이번 불법 외국어선 나포 작전도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오사마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 이번 불법 외국어선 나포 작전도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끝맺음을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 ㉢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에 근무하는 차 경사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는지 입회했다.
→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에 근무하는 차 경사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는지 참관했다.
- ㉣ 이번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든 수색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 이번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든 수색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모두 순화한 단어들이 바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다.

정답 : ④

4.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에 근무하는 진 순경이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녜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③ 지금 안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해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로 표현해야 한다.

정답 : ①

5. 다음 <보기>는 단위어를 사용한 것이다. 모두 합한 수는?

- <보기>
㉠ 마늘 한 접 ㉡ 바늘 다섯(5) 쌍
㉢ 북어 한 쾌 ㉣ 생선 세(3) 두름

- ① 300 ② 270 ③ 250 ④ 220

[해설] 마늘 한 접: 100개, 바늘 한 쌍: 24개, 북어 한 쾌: 20마리, 생선 한 두름: 20마리

정답 : ①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보기>의 규정이 가장 바르게 적용된 것은?

<보기>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해설] ‘Bangudae’로 적을 경우에 ‘방우대’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붙임표를 붙여 쓸 수 있다.

정답 : ②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미법계에서는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배심재판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보아 왔다. 배심 재판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12명을 배심원으로 뽑아 법정 심리를 참관하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사실을 판단하고 법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들은 비공개로 토의와 투표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평결을 내린다. 이때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여야 하며, 법관은 이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법률적 소양이 없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법과 유리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견해에 맞서 신선한 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 ①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 ② 평결에 이르는 과정은 공개한다.
- ③ 법관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한다.
- ④ 평결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배심 재판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12명을 배심원으로 뽑아 법정 심리를 참관하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사실을 판단하고 법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 ①

8.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성눈 내린다
 12월 썩은 구름들 아래
 ㉠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
 성가의 후렴들이 지워지고
 산성눈 하얗게 온 세상 덮고 있다
 ㉡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캄캄하고 고요하다

그러고 보면 땅이나 하늘
 자연은 결코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다
 산성눈 한 뼘이나 쌓인다 폭설이다
 당분간은 두절이다

우뚱한 굴뚝, 은색의 바퀴들에
그렇다, 무서운 이 시대의 속도에 치여
㉠ 내 몸과 마음의 서까래
몇 개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쓰러져 숨 쉬다 보면
실핏줄 속으로 모래 같은 것들 가득
고인다 산성 눈 펄펄 내린다
㉡ 자연은 인간에 대한
기다림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
펼 펼 사람의 최악이 내린다
하늘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이문재, <산성눈 내리네>

- ① ㉠ : 밝고 활기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상한다.
② ㉡ : 이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③ ㉠ :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절망이 시각화되어 있다.
④ ㉡ : 자연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내려앉는다’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정답 : ③

9. 다음 밑줄 친 관용구가 적절하게 쓰인 것은 몇 개인가?

- ㉠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요즘 배가 등에 붙었다.
㉡ 그 사람은 고지식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한다.
㉢ 그 여자는 활개를 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 우리 엄마는 손이 떠서 일 처리가 빠르시다.
㉤ 손이 맑으면 따르는 사람도 많은 법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입에 발린 소리: 마음에도 없이 겉치레로 하는 말. (0)
활개를 펴다: 팔다리를 쭉 펴다.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기를 펴다. (0)
배가 등에 붙었다: 먹은 것이 없어서 배가 홀쭉하고 몹시 허기지다.
손이 뜨다: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다.
손이 맑다: 인색하다.
정답 : ②

10. 다음 <보기> 속 화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다갈색 바지에 흰 면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마침 도착한 버스에 탔다. 그게 다였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 ……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때민 것도 아닌데 ……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툭툭 털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황정은, <웃는 남자>

- 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 ②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
- ③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 ④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해설] 작품 속 화자는 노인이 쓰러진 게 자신의 탓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자꾸 환기하고, 말줄임표를 써서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③

11. 다음 단어(어휘)의 뜻풀이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 갓모: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
- ㉢ 꿀꿀대다: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 ㉤ 굼적대다: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인다
- ㉥ 꼬약대다: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 봉죽: 일을 꾸러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
- ㉧ 안값음: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 ㉨ 말결: 남이 말하는 앞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
- ㉩ 가닐대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 울력성당: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함

- ① 7개
- ② 8개
- ③ 9개
- ④ 10개

[해설] 모두 옳다.

정답 : ④

12. 다음 글에서 말하는 <발전 기술>의 효과를 전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수소 이용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발전(發電)이다. 연료 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연소 과정이나 구동 장치가 필요 없으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다. 연료 전지 발전 외에 핵융합 발전도 수소를 이용한 대표적 발전 기술이다.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로 융합 하는 것을 응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 발전과 연료 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①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다.
- ②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③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보다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④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해설] 이 글은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 발전 기술과, 핵융합 발전에 대한 글이다. 수소 생산 비용을 줄인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답 : ④

13.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해설] 리더십이 없으면 일이 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등산에 비유하면 산에 오르기 힘들거나, 정상에 오를 수 없음에 비유할 수 있다.

정답 : ③

14. 다음 고전 시가의 밑줄 친 시어 중, <보기>의 ㉠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에 못 생각하여 時晝를 일삼도다.
 중간에 망녕되어 名利를 바라도다.
 物外에 風月江山이 내 분인가 하노라.

經綸을 내 알더냐 救世할 이 없을러나.
 太平時世는 얼마나 멀었는가.
 필부의 爲國忠心 을 내어 뵈 데 없어라.

- 이종경, <어부별곡(漁夫別曲)>

<보기>

고전 시가 유형의 하나로서 「어부가」는 처사들이 어부를 은일지사의 표상으로 여겨, 스스로를 어부로 자처하며 자신의 심리적 대리인으로 조형되는 가짜 어부, 즉 가어옹(假漁翁)의 생애를 노래한 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부가」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노래이다. 사대부의 문학 전통에 있어서 가어옹을 통한 어부의 형상은 사대부의 유교적 세계 인식과 심미 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즉, ㉠ 현실 속에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한적한 강호 생활의 동경이 라는 양면성이 함께 드러난다.

- ①名利 ②物外 ③經綸 ④救世

[해설] 물외(物外)는 바깥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명리(名利)’는 명예와 이익인데 단어만 보면 이것도 유교적 이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명리’를 바라보았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유교적 이념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경륜(經綸): 어떤 포부(抱負)를 가지고 일을 조직(組織)하고 계획(計劃)하는 것

구세(救世): 세상(世上) 사람을 죄악(罪惡)으로부터 구원(救援)함

정답 : ②

15. 다음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가장 적절 하지 못한 것은?

- ①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②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辨明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③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分類할 줄 안다.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再考바랍니다.

[해설] 분류(分類): 종류(種類)를 따라서 나눔

결제(決濟): 일을 처리하여 끝냄.

변명(辨明): 어떤 잘못에 대(對)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밝힘

재고(再考): 다시 한 번 자세(仔細)하게 생각함

정답 : ③

16. 다음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나는 그날의 놀라운 사건을 쉬이 잊을 수가 없다.
 ②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주구장창 달리기만 하였다.
 ③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 땀은 그릴 듯도 했다.
 ④ 김 과장은 일이 생기면 재까닥 처리해 버리곤 하였다.

[해설] ‘주구장창’은 ‘주야장천(晝夜長川)’의 잘못된 표현이다.

정답 : ②

17.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 ~ ㉢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윤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 낄낄대면서

갈쭈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데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① ㉠: 현실 상황을 따르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② ㉡: 현실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③ ㉠: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이 드러난다.
④ ㉡: 현실에 좌절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해설] ‘낄낄대고 깔깔대면서’는 현실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정답 : ②

18. 다음 외래어 표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ambulance(앰블런스)
㉡ leadership(리더십)
㉢ vision(비전)
㉣ catalog(카탈로그)
㉤ barbecue(바베큐)
㉥ outlet(아웃렛)
㉦ carol(캐럴)
㉧ running(러닝)
㉨ symbol(심벌)
㉩ jacket(재킷)

- ① 7개 ② 8개 ③ 9개 ④ 10개

[해설] ‘barbecue’는 ‘바비큐’로 적는다.
정답 : ③

1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요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② 집에서만이라도 제발 편히 쉬어라.
③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다.
④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해설] ‘간’은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형제간, 동기간, 부부간’ 등은 붙여 쓴다.
정답 : ①

20. 다음 밑줄 친 관용구(속담)의 뜻풀이가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말소리를 입에 넣다: '다른 사람에 게는 안 들리게 웅얼웅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는 의미의 관용구

- ② 그는 바늘뀃에 두부살이다: '매우 연약(軟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속담
- ③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힘든 일을 억지로 한다.'는 의미의 속담
- ④ 파방에 수수엿 장수: '기회를 놓쳐 별 볼 일 없다.'는 의미의 속담

[해설]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

정답 : ③